

1. (가), (나) 왕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가)은/는 고국원왕이 전사한 후에 즉위하여 정치적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진과 수교하여 대외 관계를 안정시켰으며, 유교 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기관을 설치하였다.
 - (나)은/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병부 및 상대등 제도를 설치하는 등 정치조직을 강화하였다. '건원'이라는 자주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

- ①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 ②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 ③ 영토 확장과 더불어 수도를 천도하였다.
- ④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 원칙을 세웠다.

정답: ②

* 고구려 소수림왕과 신라 법흥왕의 공통점

(가) 4세기 중.후반 고국원왕(331~371) 때에 서북쪽의 전연(342)과 남쪽의 백제의 침략을 받아 평양성에서 국왕이 전사(371)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림왕(371~384)은 중국 북조 전진(순도 파견)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이전의 다양한 신앙을 불교 중심으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 하였다. 이어 태학을 설립(372)하여 인재를 길렀으며, 율령을 반포(373)하여 국가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나) 6세기에 들어 신라는 지증왕 대의 눈부신 발전을 계승하여, 법흥왕(514~540)은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이차돈의 순교를 통하여 불교를 공인(527)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하류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532). 이로써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 ① 한강 유역 장악은 고구려는 장수왕(413~491) 때에, 신라는 진흥왕(540~576) 때이다
- ③ 영토 확장과 더불어 수도를 천도한 왕은 고구려는 장수왕(427년, 평양 천도), 신라는 천도를 한 왕이 없었다.
- ④ 고구려는 고국천왕(179~197) 때에 왕위 계승을 형제 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꾸었으며, 신라는 눌지왕(417~458)때부터는 부자상속이 시작되었다.

2.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가) 관리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 (나) 여러 관리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

-----<보 기>-----

- ㉠ 성덕왕 대에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여 국가의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였다.
 - ㉡ 주의 장관인 군주를 총관으로 바꾸어 군사적 기능을 약화시켰다.
 - ㉢ 서시와 남시를 개설하고, 감독 관청인 서시전과 남시전을 설치하였다.
 - ㉣ 정치가 어지럽고 문란하다는 이유로 화백회의에서 국왕을 폐위시켰다.
-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②

* 통일신라기 신문왕과 경덕왕 사이 시기의 역사

신문왕(681~692):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며 신라 중대 전제왕권을 확립하였다. 중앙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 또,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687),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하기도 하였다(689). 나아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

경덕왕(742~765): 왕권이 전제화된 신라 중대의 사실상 마지막 왕으로, 한화(漢化) 정책(중앙의 관청과 관직명 및 9주 등 지방 군현명을 고유명에서 중국식으로 개칭)과 국학의 진흥 등을 통한 제도의 개편과 불국사·석굴암의 창건(751) 등의 전제지향적 정책을 펼쳤다. 이에 진골 귀족들이 반기를 들어, 타협안으로 신문왕 대(689)에 폐지되었던 녹읍이 부활되었다(757).

㉠ 성덕왕(702~737) 때에 백성들에게 정전(실제로 토지를 분급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본래부터 소유해온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조세·공납·역을 수취케 한 토지)을 지급하였다(722).

㉡ 신라는 주의 장관을 초기에는 군주(軍主)로 하다, 삼국통일 중인 문무왕 1년(661)에 총관(摠管)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총관은 일시적 명칭이고, 주의 장관인 아닌 군 최고 지휘관을 의미한다. 주의 장관은 도독(무열왕), 총관(신문왕) 등을 병용하다가 원성왕(785) 이후 도독으로 통일되었다.

㉢ 통일 후 신라 경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상품 생산이 늘어나 이전에 설치된 동시만 으로는 상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효소왕, 695).

㉣ 진지왕(576~579)은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화백회의에 의하여 폐위되었다.

3. 다음 중 위만의 집권 이후 나타난 고조선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
- ㉠ 요서 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하였다.
 - ㉡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 ㉢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 제도가 마련되었다.
 - ㉣ 한(漢)과 진(辰)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였다.
-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③

* 위만의 집권 이후 나타난 고조선의 변화

고조선은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 BC 3C 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전국 7웅 중 하나인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진·한 교체기인 기원전 2세기경, 서쪽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유이민 세력인 위만이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이 시기에 철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조선은 이를 바탕으로 주위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다. 또, 한 반도 남부 지방에 위치한 진의 여러 나라와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 부강해졌다.

고조선이 강성해지면서 한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커가자, 한은 대군을 보내어 수도인 왕검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은 막강한 한의 대군을 맞아 1년 동안 버티면서 잘 싸웠으나,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고 고조선은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4.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나라는 전국의 행정 구역을 5경 15부 62주로 구분하고, 부와 주에는 도독과 자사를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그리고 수도인 상경을 중심으로 거란도, 영주도, 압록도, 신라도, 일본도 등의 교통망을 정비하여 주변의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 ①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창하였다.
- ② 고구려, 백제를 통해 중국 문화를 수용하였다.
- ③ 청해진을 설치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 ④ 산둥 반도의 발해관을 통해 중국과 교류하였다.

정답: ④

* 발해의 대외교역

5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를 갖춘 발해는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하였다. 특히, 당과는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는데, 당은 산둥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담비 가죽, 인삼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이었다. 수입품은 귀족의 수요품인 비단, 책 등이었다.

일본과의 무역도 규모가 한 번에 수 백명이 오갈 정도로 활발하였다. 신라와는 초기 무왕(719~737) 대에 적대 관계였으나(당의 사주를 받아 733년 발해의 남쪽 국경 지대 공격), 문왕(737~793) 이후 관계를 회복하고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이용해 신라와도 무역하였다. 신라와는 견직물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경제 교류가 있었다.

① 고려는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창하였다.

② 신라는 한강 유역을 획득하기 이전에는 고구려(내물왕 때에 전진과 통교)와 백제(법흥왕 대에 양과 통교)를 통하여 중국과 교류하였으나, 진흥왕 때에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에는 당항성을 통하여 직접 교역하였다.

③ 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지자, 당에서 신라로 귀국한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5. ㉠, ㉡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비유로 말씀드리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쳐야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나무는 합쳐야만 소리가 납니다. ㉠폐하께서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입니다.(중략) 지금 ㉡아버님께서 바다 가운데 큰 용이 되시고 김유신도 천신이 되셨습니다. 두 분 성인이 마음을 합하여 이같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보물을 만들어 저를 시켜 바치는 것입니다. - 삼국유사 -

- ① ㉠ -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진압하였다.
- ② ㉠ - 정무 중심 기관으로 품주를 설치하였다.
- ③ ㉡ -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즉위하였다.
- ④ ㉡ - 주의 장관을 군주에서 도독으로 개칭하였다.

정답: ①

* 문무왕과 신문왕

보기는 신라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수증릉(대왕암)과 감은사(682)를 짓고 추모하는데,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합심하여 동해의 한 섬에 대나무를 보내어 만든 피리 만파식적(萬波息笛)에 관한 것이다.

㉠ 신문왕(681~692):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 또,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 문무왕(661~681): 백제 멸망(660) 후 부왕 무열왕(진골 출신 최초의 왕)이 죽자, 즉위한 문무왕은 백제 부흥 운동을 진압하고(660~663), 나.당 연합군을 통해 평양성을 함락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668). 그러나 당은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군을 몰아 내기 위해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지원하며 나당전쟁을 벌였다.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크게 물리치고(675). 당의 수군을 금강 하류 기벌포에서 격파하며(676), 대동강 이남 땅에서 당군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통일을 이룩하였다(676).

② 진흥왕(540~576) 때에 조(租)·조(調)의 출납을 담당하며 왕실의 가신적 성격이 농후한 품주를 설치하였다(565).

④ 삼국사기 직관지에 따르면 주의 장관은 군주에서 총관(661, 문무왕 1년), 총관에서 도독(785, 원성왕 1년)으로의 개칭만 나온다. 군주에서 총관을 건너 띄어 바로 도독으로 개칭했다는 것은 잘못된 기술이다.

6.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회영, 이동녕, 이승훈, 김구 등 간부들이 양기탁의 집에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자금을 마련해 서간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무관 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이회영 등이 먼저 서간도로 이주하여 독립 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 ① 복벽주의를 표방하였다.
- ②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③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공화정 체제의 근대 국가 건설을 추구하였다.

정답: ④

* 서간도를 개척한 신민회(1907~1911)의 활동

통감부의 탄압으로 공개적 애국계몽 활동이 어려워지자 비밀 결사인 신민회가 결성되었다(1907). 안창호, 양기탁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면서 800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한 신민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에 바탕을 둔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민회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태극서관과 자기 회사를 세워 문화 활동과 민족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독립 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이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서간도 삼원보로 집단 이주하고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① 1912년 임병찬 등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여 일본을 몰아내고 대한 제국을 복원하려는 복벽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 정부와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 제출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해체되었다(1914).

② 정미의병(1907~1908) 때에 13도의 의병이 총 합류하여 13도 창의군(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을 결성하고 각국 공사관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통보하고 서울로 단번에 진공하는 서울진공작전(1908.1)을 추진하였으나 지도부의 문제(부친상을 당한 총대장 이인영의 낙향과 신돌석, 홍범도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 배제)로 실패하였다.

③ 대한 자강회(1906~1907)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를 간행하면서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7. 다음 고려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사대부의 성장으로 경기체가로 불리는 새로운 문학이 등장했다.
 - ㉡ 일반 서민층에서는 장가로 불리는 새로운 민요풍의 가요가 유행했다.
 - ㉢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은 지금 남아 있는 고려 시대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 ㉣ 문인화가 등장하였으며, 김시의 그림 가운데 <한림제설도>와 <동자견려도> 등이 유명하다.
 - ㉤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불화가 많이 그려졌으며, 특히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약사여래불도가 많이 그려졌다.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고려 시대 여러 문화에 대하여 [2015년도 기상직 7급 한국사 1번과 유사]

- 고려 후기 문학에 있어 새로운 경향은 사대부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경기체가의 등장이다. 송사(宋詞)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신진 문인관료들의 호사스러우면서도 득의에 차고 희망에 넘친 현실생활이 잘 그려져 있다. <한림별곡>·<관동별곡>·<죽계별곡>이 대표적이다.

- 고려 후기에 유행한 속요는 고려 가요 또는 장가라고 하는 민요를 바탕으로 자라난 서민들의 노래로서 작가가 분명치 않다. 이러한 속요로는 <동동>·<정읍사>·<정과정>·<처용가>·<청산별곡>·<쌍화점> 등 토속적이며 솔직한 감정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읊은 노래로서 우리나라 시가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한 것이다.

- 고려 전기에는 주로 주심포 양식(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져 있음)이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러한 건물 중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은 1363년 중수된 기록이 있어 13세기 초 건립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건물로 알려져 있다.

- 고려 후기에는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그 내용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및 관음보살도가 많았다. 일본에 전해 오고 있는 혜허가 그린 양류 관음도와 여러 종류의 수월 관음도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④ 김시(1524~1593)는 조선 중기의 문인화가로 한림제설도, 동자견려도 등이 유명하다.

8. (가) 인물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 이곳은 정암 (가) 선생이 귀양살이를 하던 집이고 또 생을 마친 곳이다. 아, 지난 기묘년은 지금으로부터 149년이나 되는데, 학사(學士).대부(大夫)는 그 학문을 사모하고 백성은 그 혜택을 생각하되, 세월이 오랠수록 더욱 잊지 못하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숙연히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아, 이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겠는가. 그 타고난 떳떳한 마음에서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 송자대전 -

- ① 현량과 설치
- ② 소학의 보급
- ③ 홍문관 설치
- ④ 공납 제도 개선

정답: ③

* 정암 조광조(1482~1519)에 대하여

중종 반정(1506) 후 중종은 사람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사람의 학통이 이어짐)가 중용되면서 그의 건의에 따라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람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훈구 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의 사람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반정공신 중 위훈(僞勳)삭제, 소격서(도교적 행사인 초제 주관 기관)의 폐지, 향약의 시행,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③ 조선 성종은 예문관에서 집현전 후신으로서의 홍문관을 분립시켜 경연을 전담하게 하고 국왕의 자문과 대간(臺諫)의 언론 활동을 지원케 하였다(1478).

9. 밑줄 친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일본의 강요로 정부는 김홍집을 총리대신으로 하는 내각을 수립하였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당시 일본은 청·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적극 간섭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제 개혁은 자주적으로 폭넓게 진행되었다.

- 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 ②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 ③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④ '건양' 연호를 사용하였다.

정답: ①

* 1차 갑오개혁(1894. 7~12)

동학농민동 당시 텐진조약에 의거해 출동한 일본은 조선 정부의 철병 요구를 무시하고 경복궁을 점령(7.23)한 후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일 전쟁(7.25)을 일으킨 후, 흥선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여 김홍집 내각을 통해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7.27)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였다(1차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1894. 7~12)에서는 개국 기년을 사용하고(청과의 종속관계 단절),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와 신분제를 폐지하였으며 재정 일원화(탁지아문)와 '신식화폐발행장정' 제정을 통해 은본위 화폐제와 외국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은 김홍집 내각에 박영효를 불러들이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1894.12~1895.7). 흥범 14조(1895.1)를 발표하여 개혁의 강령을 선포하고, 중앙(8아문→7부)과 지방(8도→23부, 337군) 제도 개편과,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 배제, 재판소 설치, 교육입국조서 반포(1895.2, 한성 사범 학교, 소학교, 외국어 학교 관제가 마련되고 학교가 설립됨) 등이 있었다.

을미개혁(1895.8~1896.2): '건양' 연호 사용, 단발령 실시, 친위대·진위대 설치,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실시, 소학교 설립, 우편 사무 실시

10. 다음 토기가 주로 사용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덧무늬 토기 -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 미송리식 토기 - 외날찍개, 주먹도끼 등을 이용하여 사냥과 채집생활을 하였다.
㉢ 민무늬 토기 - 마을 주변에 방어 및 의례 목적으로 환호(도랑)를 두르기도 하였다.
㉣ 빗살무늬 토기 -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 도구로 고기잡이를 하였다.
-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①

* 여러 토기들과 관련 시대상

신석기 시대: 발굴된 유물에는 간석기와 낚시, 바늘 등의 뼈 도구가 있다. 그리고 빗살무늬토기(아가리가 넓고 밑이 뾰족)가 널리 사용되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이보다 앞선 토기로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 등이 있다.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서 원형의 움집에 살면서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 그물 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었고, 돌창, 돌화살 등으로 사냥을 하였다. 한편,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채취하여 먹는 생활을 하다가, 뒤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력이 미약하여 계급은 발생하지 않았다.

청동기 시대: 농기구로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귀 등의 석기와 장신구로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등의 청동기, 그리고 토기로는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토기, 민무늬 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홈자귀, 팽이 등의 간석기나,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사냥이나 고기잡이도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농경의 발달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돼지, 소, 말 등 가축의 사육은 이전보다 늘어났다. 생산력이 증가하고,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하였고, 부족 간의 전쟁이 잦아지자 방어를 위해 내륙과 구릉에서 목책과 환호를 취락 주변에 두르고 장방형의 움집에서 살았다.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찍개(외날->양면), 주먹도끼 등의 편석기를 사용하였고, 장기간 식량을 따로 저장하지 않아 토기가 제작되지 않았다.

11. 다음 개혁 내용을 시대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의 행사를 폐지한다.”
 - ㉡ “공.사 노비법을 타파하고 과부 재가를 허용한다.”
 - ㉢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한다.”
 - ㉣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한다.”
 - ㉤ “단발령을 실시하고, 우편 사무를 시행한다.”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③

* 근대 개혁의 연대기

㉠ **갑신정변 개혁정강 14조(1884.12)** : 청에 대한 사대 관계 청산, 문벌 폐지·인민 평등권 확립과 내각 중심의 정치, 지조법 실시, 호조로 재정 일원화, 해상공국 폐지 등을 주장

㉡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1894.6)**: 노비 문서 소각, 천인 차별 개선과 과부의 개가 허용, 무명의 잡세 폐지, 토지 평균 분작 등을 주장하였다.

㉢ **1차 갑오개혁(1894. 7~12)**: 신분 제도 폐지(공.사 노비 혁파),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제 등 봉건적인 악습 혁파 등의 근대적 사회개혁을 단행.

㉣ **을미개혁(1895.8~1896.2)**: ‘건양’ 연호 사용, 단발령 실시, 친위대·진위대 설치,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실시, 소학교 설립, 우편 사무 실시

㉤ **관민공동회 헌의 6조(1898.10)**: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 중대 범죄 공판과 피고의 인권 존중 등

12. 다음은 개항 이후 조선이 외국과 맺은 조약이다. 이를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조영하(趙寧夏)와 윌리스(George O. J. Willes)가 한·영조약에 서명하였다.
 - ㉡ 신헌(申.)과 슈펠트(Schufeldt) 사이에 한·미 수호조약이 조인되었다.
 - ㉢ 한·독조약이 조영하와 브란트(Maximilian August von Brandt)사이에 조인되었다.
 - ㉣ 웨베르(Karl Ivanovich Waeber)와 김병시(金炳始)가 한·러수호통상조약에 서명하였다.
 - ㉤ 민영목(閔泳穆)과 파크스(Harry Parkes) 사이에 한·영신조약이 조인되었다.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②

* 개항 이후 조선이 외국과 맺은 조약의 연대기 [2015년도 경찰간부 한국사 31번과 유사]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 인천 제물포에서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대표: 신헌, 슈펠트). 이 조약은 거중 조정 조항,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 등 강화도 조약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외법권(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 협정 관세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조영수호통상조약(1882.6.6):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천진에 전해지자 영국은 프랑스에 뒤질까봐 서둘러 청의 알선으로 서울에서 윌리스와 조영하·김홍집 사이에 조영수호통상조약이 조인되었다. 그러나 조약 내용에 불만을 품은 영국 본국이 비준이 미루자, 청의 알선을 배제하고 민영목이 영국의 파크스와 직접 협상하여 개정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이 1883년 11월에 조인되었고, 1884년 4월 에 비준이 이루어졌다.

조독수호통상조약(1882.6.30): 영국과 같은 시기에 독일과도 조영하와 브란트 사이에 조·독 수호통상 조약이 조인되었으나, 조영조약에 불만을 품은 영국이 독일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의 조약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영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요구했기에 비준 연기를 요청하여 민영목(조선)과 자페(독일) 양 전권은 협상을 전개하여 1883년 11월 수정된 조독조약을 체결되었고, 비준교환은 1884년 11월에 이루어졌다

조러수호통상조약(1884.7):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자 청국주재 러시아공사는 즉시 이홍장에게 주선을 요청했으나 이홍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천진 주재 러시아 영사 웨베르는 이홍장이 추천, 파견하는 뮐렌도르프를 설득하여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선정부는 외무독판 김병시를 전권에 임명하여 러시아전권 웨베르와 회담한 결과 1884년 7월에 조약을 체결하였고, 1885년 10월에 비준을 교환하였다. 조약의 체제와 내용은 한영조약과 비슷하며 영국의 경우처럼 러시아의 군함도 조선의 모든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하도록 규정하였고 조선영해의 측량, 해도 작성 등을 허여하였다. 치외법권 및 관세의 규정도 한영조약과 같았다.

13. 다음 조약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은?

-
1. 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병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2. 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에 용병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

러·일 전쟁 ㉠ 포츠머스 ㉡ 통감부 ㉢ 고종 ㉣ 간도 협약
발발 조약 체결 설치 강제 퇴위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 1차 한일협약(1904.8)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면서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일제는 이 때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과 1차 영·일 동맹(1902)을 체결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 후,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를 선제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1904.2).

이에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1904.2)를 강제적으로 체결하여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점령을 꾀하였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여 외교(스티븐슨), 재정(메가타: 화폐정리사업 추진) 등 각 분야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어 한국 내정을 간섭하였다. 일제는 미국과는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1905.8)을 맺은 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1905.9)을 체결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발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설치하여 보호국으로 하였다(1905.11).

그러나 고종은 을사조약 체결이 무효임을 선언했으며, 국제 사회에 독립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호소하였다. 특히, 미국에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상호협력 조항을 근거로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제2차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고 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자 하였다(1907). 그러나 이러한 고종의 외교적 노력은 열강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있던 세계 정세 아래에서 성공을 허두지 못하였다.

일제는 헤이그에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1907.7). 이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였으며, 군대마저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인 의병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남한대토벌작전: 1909.9~10) 사법권(기유각서: 1909.7) 과 경찰권(1910.6)을 빼앗은 다음,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앞세워 대한제국을 일본에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고, 결국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한일병합: 1910.8).

14. 개항기에 체결된 통상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일 통상 장정(1876) -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양곡 유출 제한 등이 합의되었다.
- ②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 양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의 압력을 받을 경우 서로 도와줄 것이라는 거중 조정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 ③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 -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조선에서의 청의 치외 법권을 인정하였다.
- ④ 개정 조.일 통상 장정(1883) - 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정답: ①

* 개항기에 체결된 여러 통상 협약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1876.2)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부산 및 다른 두 곳(원산:1880, 인천:1883)을 개항해야 했으며, 일본에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내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이은 후속 조치인 동년 8월의 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통상장정)으로 일본화폐 사용(부록), 양곡의 무제한 유출(규칙), 일본 선박에 대한 무항세와 일본 상품에 대한 일시적 면세(규칙) 등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일본 상인의 활동범위(간행이정)는 개항장 10리로 제한되었다.

조선 정부는 국제적인 통상 관례에 크게 어긋나는 조·일 통상 장정(무역 규칙)의 무관세 규정을 시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에서 관세조항이 규정되었기에, 1883년 7월 조·일 통상 장정을 관세권의 설정(40관), 방곡령 선포(37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하였지만, 일본의 요구로 최혜국 대우(42관) 규정도 들어갔다.

한편, 임오군란(1882.6) 직후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9)은 서두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명시하였고,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생략된 채 치외법권은 물론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한성 상인에게 큰 타격), 호조(護照: 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지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하였다.

15. ㉠~㉣의 제도가 시행된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정리한 것은?

-
- ㉠ 경기 지방의 토지를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 ㉡ 국가가 농민에게 조세를 수취하여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 ㉢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 ㉣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을 부담하고 지주는 결작을 부담하였다.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정답: ①

* 조선의 토지·수취 제도 연대기

과전법(1391): 고려 말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와 토지 검병으로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자, 신진사대부들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직후 정권을 장악하고 조준 등의 주도 하에 공양왕 3년(1391)에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신진관료에게 재분배한 것으로 이후 조선 초기의 근본 토지제도가 되었다. 경기도에 한하여 전·현직 관료에게 18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부여하였다(1/10).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공신전과 수신전·휴양전 등 일부 세습화 경향이 나타났다.

관수관급제(1470): 과전법 하에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관청의 수조권 대행).

영정법(1635): 조선 후기 인조 때에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켜 부과하는(전세의 정액화) 영정법을 실시하였다.

균역법(1750): 조선 후기 영조 때에 균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여러 논의 끝에, 균역법(균포 감필론)이 시행되었다(1750). 이는 농민이 1년에 군포를 2필 부담하던 것을 1필만 줄여준 제도이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영류 지역 제외),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염·선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16. 동북아시아의 영토와 역사 갈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본은 야마토 조정의 임나일본부설을 수록한 후소사 교과서를 중학교 역사 교과서로 채택하였다.
- ② 일본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다.
- ③ 중국은 중국 내 55개 민족 모두 중화 민족이고 그들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라는 논리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 ④ 일본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 ②

* 동북아시아의 영토와 역사 갈등

- 일본에서 1997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가 결성되고, 이들이 후원하는 후소사(扶桑社)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가 2001년 문부성의 검정에 합격된 후 독도영유권, 임나일본부설 등을 담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 일본 오키나와 제도에서 약 300km, 타이완에서 약 200km 떨어진 동중국해 남부에 있는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일본·타이완 간의 영유권 분쟁이 치열하다.

- 중국은 “55개의 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인 중국은, 중국을 이루는 모든 민족과 영토의 역사를 모두 중국사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는 동북공정을 추구하고 있다.

-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도 관할하게 하는 칙령 41호로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1900.10.25).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일개 지방현인 시마네현 고시 40호)으로 자국의 영토(시마네 현)에 편입시켰으나(1905), 해방 후 되찾았고 1952년부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 영토임을 부르짚으며 끈질기게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17. 조선시대에 발생한 다음 정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 윤씨의 폐출 사건에 연루된 훈구 대신과 사림세력이 참혹하게 처벌받았다.
 - ㉡ 인종과 명종의 왕위 계승 문제로 외척 간의 대립이 정쟁으로 표면화되었다.
 - ㉢ 왕도정치를 실현하려고 한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 훈신들이 반격을 가하였다.
 - ㉣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빌미로 다수의 신진 관료들이 죽거나 처벌을 당하였다.
-

- ① ㉠은 소윤(小尹)과 대윤(大尹)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 ② ㉡은 명종을 해치려 했다는 이유로 윤임 일파가 몰락하였다.
- ③ ㉢에 서술된 개혁을 추진한 세력은 향촌자치와 부국강병을 주장하였다.
- ④ ㉣은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서 훈구세력이 산림(山林)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으켰다.

정답: ②

* 조선 중기 사회에 대하여

연산군(1494~1506)은 훈구와 사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사림의 분방한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영남 사림의 대표적 인물인 김종직이 생전에 지은 조의제문(항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초나라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 그가 죽은 후에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로 실록에 작성한 것을 유자광, 이극돈의 훈구세력이 문제 삼아 김종직(부관참시), 김일손 등의 사림파들을 처형하는 무오사화(1498)가 발생하였다.

이어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둘러싸고 궁중파(임사홍, 신수근)가 성종의 유지를 주장해 폐비복위를 반대한 잔존 사림(윤필상, 김광필, 정여창)과 훈구파 중 부중파(한명회, 정창손) 등을 처형하는 갑자사화가 발발하였다(1504).

연산군은 이후 언론을 극도로 탄압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등 폭압적인 정치를 단행하다가 결국 중종반정으로 쫓겨났다(1506).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사림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훈삭제에 대해 반발하는 훈구 공신들의 주초위왕(走肖爲王) 모략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그 뒤 중종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림을 등용하기도 하였으나, 명종이 즉위하면서 윤원형(소윤, 명종의 외척), 윤임(대윤, 인종의 인척) 등 외척간의 권력다툼에 휩쓸려 사림 세력은 윤임 일파와 함께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다(을사사화, 1545).

③ 훈구세력은 부국강병과 중앙집권을, 사림은 왕도정치와 향촌자치를 추구하였다.

④ 관직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큰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는 산림(山林)의 출현은, 사림이 중앙정계를 장악한 봉당정치기 이후이고, 선조 대의 성혼, 정인홍 등이 그 효시이다.

18. 다음 중 삼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백제의 성왕은 22담로를 설치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 ② 신라의 내물왕은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왜구를 격퇴하였다.
- ③ 고구려 장수왕은 왕위 계승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꾸었다.
- ④ 신라의 마립간이라는 왕호는 무당,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정답: ②

* 삼국에 대하여

- 무령왕(501~523)은 웅진 시대의 백제의 왕으로 혼란한 백제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 신라 내물왕(356~402) 때, 백제가 왜를 끌어들여 신라에 침입해오자, 내물왕은 고구려계 군사원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군사 5만을 보내어 왜를 격퇴하였다(400). 이로써 고구려는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의 발전을 도우고,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연맹을 붕괴시키는 등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끼쳤다.

- 고구려는 고국천왕(179~197) 때에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 온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고, 왕위계승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다.

- 신라에서는 왕의 칭호가 거서간(1대 박혁거세, 군장), 차차웅(2대 남해왕, 무당, 제사장), 이사금(3대 유리왕 이후, 연장자-이빨이 더 많다는 의미), 마립간(17대 내물왕 이후, 대군장), 왕(22대 지증왕 이후, 중국식 왕호)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 밑줄 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환궁하여 1897년 10월 12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는 '대한(大韓)'으로 바꾸었다. 또한, 1899년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발표하여 만국공법(국제법)상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 ① 구분신참의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 ②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식산흥업 정책으로 많은 회사를 설립하였다.
- ③ '대한국 국제(大韓國 國制)'라는 헌법을 제정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하려 하였다.
- ④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정답: ③

*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아관 파천(1896.2) 후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1897.2).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고친 후 환구단을 쌓아 황제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대한 제국이라 선포하였다(1897.10). 대한제국은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된 국가로, 고종은 국내외에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1899년에는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 군주임을 강조하였다.

대한제국은 구분신참(舊本新參)의 원칙 아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광무개혁). 대한제국은 국가의 자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와 재정 확충, 상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대원수에 취임하여 군사권을 장악하고 황제 호위 부대를 증강하였으며, 장교 양성을 위해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와 함께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여(식산흥업)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근대적 과학 기술을 일으키기 위해 의학교, 실업학교, 외국어 학교 등을 세우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20. 다음 중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외역전과 내장전을, 관청의 경비를 위해 공해전을 두었다.
 - ㉡ 문종 30년의 경정전시과는 18과로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액수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감소되었으며, 한인·잡류에게도 지급되었다.
 - ㉢ 경종 원년의 시정전시과는 4색 공복을 기준으로 관품과 인품을 병용하여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 ㉣ 목종 원년의 개정전시과는 18과로 나누어 직·산관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한외과(限外科)가 없어졌다.
 - ㉤ 6품 이하 하급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고려 시대의 토지제도 [2016년도 경간 한국사 21번과 유사]ㅎ

고려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전시과는 경종 원년(976)에 처음 실시되었다(시정 전시과). 직관과 산관(관직이 없고 관계만을 보유하던 관원) 모두에게 전지(논·밭)와 시지(임야)를 지급하였고, 관품과 인품을 병용하여 차등지급하였다. 광종 때 제정된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다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8개 표와 관리들의 세력 크기에 따라 다원적으로 구성되었다.

목종 원년(998)의 개정 전시과는 여전히 직·산관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지만, 18품의 관등이 기준이 되어 일원적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여 관료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문신 귀족적 요소가 반영되어 무관이 같은 품계의 문관에 비해 적은 전지를 받았고, 현직 우위의 경향이 있어 산관은 현직에 비하여 몇 과를 낮추어 토지를 지급받았다. 또한 18품 이하 관리에게 17결의 한외과가 지급되었고, 16과 이하로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았다.

문종 30년(1076)의 경정 전시과는 국가의 토지 지배가 더욱 강화되어 지급액수가 전체적으로 감소, 산직자는 완전 배제하였다. 무반에 대우가 현저히 상승하고, 지방 향직도 토지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한외과로 분류되었던 한인(閑人), 잡류(이속)도 한내(限內)로 편입되어 제18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15과 이하는 시지가 급여되지 않았다. 또한 무산계(향리, 노병, 공장, 악인, 탐라 왕족, 여진 추장)와 별사(승려, 지리업) 전시가 별정 전시과로 병설되었다.

한편,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이는 음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한인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하였고,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로서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향역을 담당하는 향리에게 지급하는 외역전도 그러하였다.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내장전을 두었다.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는 공해전을 지급하여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고, 사원에는 사원전을 지급하였다.